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<속보> 트럼프는 오늘 금요일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APEC에서의 시진핑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 있고 중국산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 최근에 중국의 입항료 보복 부과, 쿼텀 반독점 조사, 희토류 수출 통제,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에 대한 반발이었다. 이에 따라 오늘 12:00pm 현재 나스닥은 2% 가까이, S&P 500은 1.5%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: 골드만삭스,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건 늘어...23만 5천 건
- YahooFinance: 연준, 10월 정례회의 금리 결정 어려운 상황

[미 행정부]

- WSJ: 연방 물가 지표 준비 위해 휴직 공무원 일시 복귀
- Bloomberg: 섯다운으로 미 경제 타격 입는다
- Bloomberg: 트럼프, 바이든이 주창한 대규모 네바다 주요 태양광 프로젝트 폐지

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중국, 미 선박 입항료 부과하고 쿼텀 반독점 조사

[주택]

- Bloomberg: 미 모기지율, 3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

[자동차]

- WSJ: 미국인들, 자동차 대출금 못 갚는다

[인공지능]

- CNNBusiness: 배관공도 업무용으로 ChatGPT 좋아해
- Bloomberg: 아마존, 업 AI 에이전트 재부팅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CNBC: 델타항공, "내년에 프리미엄 여행이 일반석 판매보다 앞서"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Initial Jobless Claims Rise to 235,000 in Goldman Analysis

골드만삭스, 신규 주간 실업 수당 청구건 늘어...23만 5천 건

- 연방정부 섯다운으로 관련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 가운데 지난주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상승했다고 민간 기업인 골드만삭스는 오늘 금요일 발표했다 주 단위로 집계한 것이다.
- 10월 4일 끝나는 주간에 관련 건수는 23만5천 건으로 골드만삭스 자체의 그 전주 추정치 22만4천건보다 증가했다.

-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전체 건수는 1백92만건으로 그 전주의 추청치 1백91만건보다도 늘었다.

Bloomberg 기사

YahooFinance: Fed braces for tough October showdown over interest-rate cuts

연준, 10월 정례회의 금리 결정 어려운 상황

- 연준이 오늘 28일부터 양일간 정례회의를 갖게되는데 최근 정부의 관련 경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금리 관련 어려운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.
- 연방정부의 물가와 일자리 관련 지표들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높은 물가와 일자리 둔화에 대한 민간 기관의 발표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다. 연준 역사상 거의 최악의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.
- 연준은 인플레이와 일자리, 금리 간에 균형을 취해야 하며, 물가는 높은 수준인데 일자리는 둔화된 상태라 고민하고 있다. 이 상황에서 트럼프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.

YahooFinance 기사

[미 행정부]

WSJ: Federal Government Recalls Workers to Produce Key Inflation Report

연방 물가 지표 준비위해 휴직 공무원 일시 복귀

-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휴직상태인 일부 공무원들이 9월 물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복귀할 것이라고 행정부는 밝혔다.
- 왜냐하면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매월 전국에 지급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적정 수치를 계산하기 위한 핵심 지표인데 당초 10월 15일까지 발표 예정일이다.
- 이 같은 계산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셜시큐리티 수령자들의 연간 생활비용이 차질을 빚을수 있기 때문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Shutdown Pain Ripples Through US Economy With No Deal in Sight

셧다운으로 미 경제 타격 입는다

- 연방 셧다운이 2주째 접어들면서 종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.
- 이제부터 실제 연방정부 업무 서비스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.
- 이번주에 25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고, 다음주에 추가로 2백명 이상이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. 군 급여 지급일이 10월 15일 인데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- 항공 여행 검색 서비스 지연, 연방 국세청 업무 지연, 국립 공원 서비스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.
- 항공 여행의 경우 평상시 운행 지연 원인의 5%가 검색대 인원 부족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그 비율이 50%로 상승했다.
- 연방 국세청의 경우도 이번주에 3만4천명이 휴직중이며 나머지 4만명만이 내년 세금 신고 시즌을 준비하고 트럼프 관세법을 처리중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US Cancels Major Solar Project in Nevada Biden Had Championed

트럼프, 바이든이 주창한 대규모 네바다 주요 태양광 프로젝트 폐지

- 트럼프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네바다의 대규모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있다.
- NextEra Energy와 Invenegy를 포함한 개발업체들이 라스베가스 북서쪽은 연방 정부 소유지 11만8천에이커의 땅에 7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이었다. 세계에서 가장 큰 관련 프로젝트였다.
- 당초 바이든이 주창한 프로젝트였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한후 폐지 위협이 커졌었다.

Bloomberg 기사

[무역 전쟁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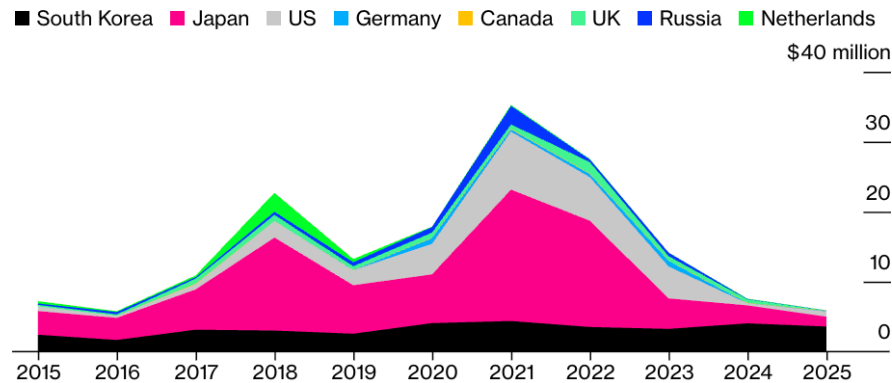
Bloomberg: China Targets Qualcomm, US Ships as Xi and Trump Seek Leverage

중국, 미 선박 입항료 부과하고 퀄컴 반독점 조사

-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 회담을 앞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고 퀄컴사에 반독점 수사를 시작했다.
- 중국의 교통부는 오늘 금요일 미국 기업과 개인이 소유한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. 이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선박도 해당되며 10월 14일에 실시된다.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는 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다.
- 또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퀄컴사의 이스라엘 회사 Autotalks의 인수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.
- 중국은 이미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트럼프의 지지층 농부들이 재배하는 대두 콩 수입도 중단 상태다.

South Korea, Japan Hardest Hit By Latest Rare Earth Curbs

Sales of elements including the five targeted by Beijing had been slumping



Source: China's Customs, Bloomberg

Note: Numbers for 2025 are for the first eight months of the year.

Bloomberg기사

[주택]

Bloomberg: Mortgage Rates in the US Decline for First Time in Three Weeks

미 모기지율, 3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

- 미국의 모기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 3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. 30년 고정 대출의 평균 금리는 6.3%로, 지난주 6.34%에서 하락했다.
-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주택 구매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졌으나,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.
- 또한, 미국인 6명 중 1명은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주택이나 자동차와 같은 주요 구매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10월 5일까지 4주 동안 구매자 계약은 전년 동기 대비 1.3% 감소했으며,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.

Bloomberg 기사

[자동차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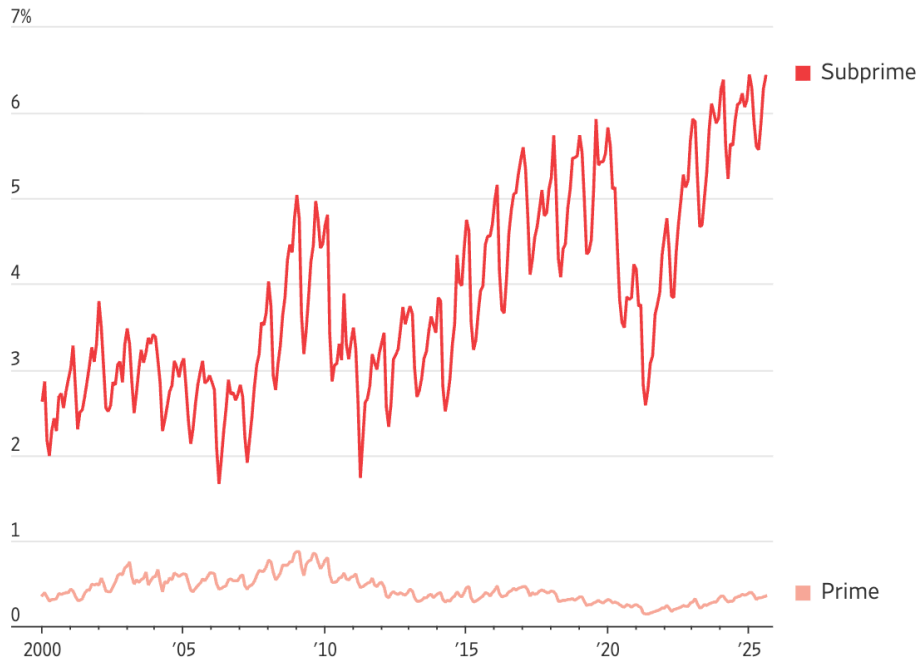
WSJ: Americans Are Falling Behind on Their Car Payments

미국인들, 자동차 대출금 못 갚는다

- 팬데믹 이후 자동차의 가격이 급등하고 제조사들은 인센티브를 삭감하며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많은 소비자들 중 특히 저소득층 가정은 장기 대출을 받아 왔다.
- 그러나, 임금 정체와 실업률 상승으로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다.
- 신용점수가 650점 미만인 신차 구매자의 비율이 약 14%에 달했는데, 이는 2016년 이후 이달 최고치이다.

-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 중 60일 이상 연체된 대출의 비율은 올해 6%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. 또한, 작년에는 약 173만 대의 차량이 압류되었는데,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.
- 신차 가격 상승은 수년간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. 월평균 납입금은 750달러 이상으로 치솟았고, 현재 대출 및 리스의 약 20%가 달마다 1,000달러 이상의 납입금을 내야 한다.

Portion of loan receivables 60 or more days delinquent, by credit type



Source: Fitch Ratings

Bloomberg 기사

[인공지능]

CNNBusiness: Your plumber has a new favorite tool: ChatGPT**배관공도 업무용으로 ChatGPT 좋아해**

- 위스콘신주 소재의 Oak Creek Plumbing & Remodeling사의 배관공들은 공구 키트 뿐만 아니라 ChatGPT가 설치된 태블릿을 업무에 꼭 포함시킨다.
- 직원들은 이 태블릿을 통해 자동으로 송장과 제안서를 작성하고, 복잡한 배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추천 받는다. 예를 들어, 고장난 온수기 사진을 찍어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ChatGPT가 권장 사항 목록을 추천해주는 것이다.
- 배관공 뿐만 아니라 전기 기술 기업, 청소 기업 등 다양한 블루 칼라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, 비용 절감, 행정 지원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AI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.
- 기술자들이 행정 업무를 더 빨리 처리하고 고객에게 추가 서비스나 액세서리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돕는 AI 도구를 도입한 후에는 매출 증가를 경험하기도 했다.
- 블루 칼라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기술자들은 “더욱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고 있다”고 전했다.

CNNBusiness기사

Bloomberg: Amazon Reboots AI Agent for Workers, Taking on ChatGPT, Copilot**아마존, 업 AI 에이전트 재부팅**

- Amazon Web Services가 Quick Suite을 발표했다. 이는 판매 데이터 분석, 보고서 작성, 웹 콘텐츠 요약 기능을 갖춘 챗봇과 AI 에이전트 세트이다.
- 사용자는 월 20달러에 이 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, 다른 도구와도 통합해 내부 데이터베이스, 소셜 미디어 피드, Adobe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.
- ChatGPT, Copilot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의 AI 도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I를 직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 세트를 출시한 것이다.
- Amazon Web Service는 AI 서비스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지는 않았지만, 가장 먼저 영업 및 마케팅 직원, 그리고 분석 및 비즈니스 운영 분야의 직원을 타겟으로 점점 입지를 넓혀갈 것이라 전했다.

Bloomberg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**CNBC: Delta says premium travel is set to overtake coach cabin sales next year****델타항공, “내년에 프리미엄 여행이 일반석 판매 보다 앞서”**

- 델타 항공의 프리미엄 여행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, 2025년 나머지 기간과 내년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.
- 델타 항공은 지난 분기에 프리미엄 객실 항공권 수익이 작년 대비 9% 증가해 약 58억 달러를 기록했다. 반면, 일반 객실 항공권 수익은 전년 대비 4% 감소해 60억 달러를 기록했다.
- 이들은 2024년 매출 중 43%만이 일반석 항공권에서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, 이는 2010년 60%에서 감소한 수치이다. 또한, 작년 매출의 약 60%가 프리미엄 좌석 및 로열티 프로그램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.

CNBC 기사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